

김서정의
절집나무이야기

⑰ 전남 나주 심향사 모과나무

꽃의 눈이 되려면 가고 또 가야겠지

황톳빛 벽에 둥근 기와로 물결을 만든 뒤 빨간 벽돌로 지붕을 얹은 담장과 우윳빛 벽에 일자형 기와로 책장 풍경을 펼친 뒤 처마를 얹어 마감을 한 담장 사이가 입구 같은데, 주위를 둘러보아도 일주문 형상을 찾을 수 없다. 평지가 많은 나주에서 가장 높은 금성산 자락이라고 해도 도로와 인접해 그런가 갸우뚱하면서도 입장 신고식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억누를 수 없어 좀 더 서성인다. 그때 담장 안쪽 두 나무가 발길을 잡아끈다. 언젠가 염주가 될 수도 있는 씨를 풍선처럼 안고 있는 모감주나무와 녹색을 띤 미래의 염주 열매를 달고 있는 보리자나무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눈인사를 전한다. 향기 나는 일주문 같아 더 그윽한 눈길을 보낸다.

하지만 꽃이 진 나무에서는 진한 향기는 나지 않는다. 그래도 봄날에 맡았던 코끝의 감각세포를 기어코 열려고 애쓰며 좌우를 살피는데, 종루 아래 노란 벽에 걸린 플래카드 제목이 갈팡질팡 마음에 빛을 준다.

"꽃의 눈에는 세상이 모두 꽃이다."

그래서 내 눈에는 모감주나무와 보리자나무가 일주문으로 보였나 위로하며 전체 글을 읽어나가는데, 마지막 한 구절에서 낯선 곳에 서 있는 듯한 경련을 일으킨다.

"애인의 눈에는 세상이 모두 애인이고."

절에 들어와 애인이라는 말을 마주하니 최고의 구경은 엿보기라는 끈적끈적한 기분이 들어 묘해진다. 그래서 작가인 두르가 랄 쉬레스타를 찾아보니 네팔 국민 시인이란다. 그래도 생각을 멈출 수 없다. 〈법구경〉에 나오는 "사랑하는 사람을 갖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도 갖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라는 문장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매번 오독으로 깊은 이해를 하지 못해 색안경을 벗어버리기 힘든 여정, 부리나케 계단을 올라 본래 보려고 했던 모과나무를 빙빙 돌다 안내글을 본다.

2017년 보호수로 지정이 되었고, 수고 15m, 수령 200년, 나무둘레 1.8m라는 나무 이력이 있다. 이어서 1976년 미륵전 도괴 시 상량문이 발견되었는데 건륭 54년 미륵전이 모과나무 밑에 건립되었다는 기록이 있단다. 여기까지는 감정 변화가 물결치지 않는데, 음력 정월 국가와 가정의 안정을 비는 신성한 나무로 존경 받았으며, 아들을 낳고자 하는 여인네가 모과나무 아래 미륵부처님께 기도를 올렸는데, 당시 우물을 품어 미꾸라지가 나오면 아들이, 붕어가 나오면 딸을 낳았다는 전설이 있다는 대목에 멈칫한다. 장엄한 모과나무가 효험이 있어서 결과를 주는 건지, 미륵부처님의 가피로 소원을 얻는 건지 오리무중일 뿐이다.



전남 나주 심향사 모과나무.

일단은 생각을 미륵으로 옮겨가 심향사 역사를 살펴본다. 천년 고찰 심향사는 원효대사가 창건하였다고 하며 당시 이름은 미륵원이었단다. 이후 1011년 거란군이 침입을 해 고려 현종이 나주로 몽진을 오게 되었고, 이 절에 와서 나라의 평안을 위해 기도를 하였단다. 1976년 미륵전이 폭우로 피해를 입어 복원공사 중 발견된 상량문에서 "금성산 신황사 용화당 중건-건륭 54년-"이란 기록이 나왔는데, 그때가 1789년(정조 13)이다. 그러니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심향사는 신황사로 불렸는데, 신황사가 어떻게 해서 심향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고 한다. 현재 마음을 찾는 향기로운 도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심향사(尋香寺)에는 나주 북망문 밖에 있던 3층석탑, 건칠 아미타여래좌상, 석조여래좌상 등 소중한 문화유산이 많아 사찰 전체가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88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단다.

미륵전 지붕으로 쏟아지는 뜨거운 햇살을 식히려고 모과나무 그늘로 숨어들다가 연못 같은 계단 아래를 내려다본다. 못생겨서 놀라고, 좋은 향기에 놀라고, 맛이 떫어서 놀란다는 약간 울퉁불퉁한 녹색 열매를 달고 있는 모과나무와 달리, 볏짚처럼 힘을 잃어가는 듯한 버섯 핀 팽나무에 슬픔이 머금어진다. 그래도 맹아지에 잎을 내며 살아가는 모습이 경이로워 기꺼이 고개를 숙여본다. 그러면서 질문 하나 얻는다. 심향사 소개글에는 두 나무가 모두 500년이라고 되어 있고, 보호수에는 모과나무 200년이라고 되어 있고, 그걸 떠나 한 공간에서 누구는 일찍 시들어가고 누구는 여전히 건재한지 그 비교에 암울해진다.

장미과에 속하는 모과나무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봄에 다섯 장의 꽃잎이 분홍색으로 피어날 때이다. 가지 끝에서 한 개의 꽃만 피우기 때문인데, 잎보다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름이 3센티미터까지 되기에 하늘의 연꽃처럼 빛나 보인다. 그래서 여름에는 꽃의 눈이 될 수 없어 감기에 좋은 모과차를 만드는 모과나무 열매가 참외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나무 목(木) 자에 오이 과(瓜)를 써서 목과라고 했다가 모과라고 부르는 모과나무를 떠나 가벼운 등산하듯 경내 곳곳을 걷다 돌아와 명부전 앞에 앉아 먼 모과나무를 본다. 하지만 신경은 설법전 문짝 하나가 바람에 탁, 탁, 탁 들락날락하는 소리에 가 있다. 그게 종루 아래 또 다른 문장인 "마른 낙엽에도 생명의 음악 들리기 바라네"가 될 수 있을까? 꽃의 눈이 되려면 멀고 멀어도 가고 또 가야겠지.

〈작가 겸 숲해설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⑯ 황지우의 '진짜 빛은 빛나지 않는다'

모두가 안이고 모두가 바깥이다

진짜 빛은 빛나지 않는다 / 황지우

정각(正覺) 스님은 녹차 티백을 잔에서 건져내면서, 요즘 건강 좋아요, 묻는다.
의자 밑에서 지하철 공사 굴삭기 소리가 덜덜덜 났다.
신생대(新生代)에서 올라온 은행나무 밀을 나는 맹인과 함께 걸어왔었다.
가톨릭센터 유리문이 열릴 때마다 구름 위 신호등이 따라 들어온다.
큰스님 휘호라며 진광불휘(眞光不輝)를 펼쳐 보여주는데
수족관에서 지브라들이 떼지어 정각의 옆얼굴을 지나갔다.
다방 레지가 찻쟁반을 보자기로 싸가지고 부리나케 나간다.
천하장사 씨름 선수가 천하장사 씨름 선수를 번쩍 들어올렸다.
어디선가 천장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듯했다.
외환은행 앞 보도에 주차된 그랜저; "내 탓이오"는 샘물체였다.
전투 경찰들이 도열하여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나는 바라나시에서 온 애인 편지를 빨리 뜯어보고 싶어 가고 있는데
맹인이 지하도 입구에 한참 동안 서 있질 않은가. 난 승려에게 말했다.
나는, 어딘가 갈 곳이 있어야 하므로 인도에는 여태껏 안 가고 있다고.
얼룩말들이 지나간 뒤 물속의 먼지; 정각은, 빛나지 않아야 할 텐데,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씨름 선수가 씨름 선수를 아직까지 들고 있다.
나팔수처럼 얼굴을 붉히며. 나는 맹인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왔다.
사실 모든 길이 낭떠러지 아닌가.
프랑스 왕립 천문학회는 새로 발견된 별에 랭보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든가.
성기를 자른 어느 젊은 스님에 대해 정각은 얘기하기 시작한다.
번개에 의해 드러난 소나무를 본 적이 있겠죠, 내가 물었다.
지하도에는 꼭 광야의 설교자들이 있다.
나는 서울서 내려온 손님들 데리고 망월 묘역으로 갔다.
은행나무 밀에서 나는 맹인과 헤어졌다.
신호등 위 빙수처럼 쌓여지는 뭉게구름; 애완용 개가 혼자서
횡단보도를 쫄랑쫄랑 건너간다. 시청 뒷골목 카시오페아 좌(座)에 앉아
나는 또 다른 먼 별을 올려다봄시롱 밤새 술 마셨다.
요즘도 소리가 들려요, 하고 정각이 물었다.
맹인은 시각장애인협회(視覺障碍人協會)가 가톨릭센터 지하에 있다고 말했었다.
나는 머리에 공기 같은 것이 빵빵하게 찬 것 같다고 말했다.
허공에 뜬 모래 무지개; 바닥에 누운 천하장사는 일어날 줄 모른다.
나는 진광불휘(眞光不輝)를 돌돌 말았다.

–황지우 시집, 〈어느 날 나는 흐린 주점(酒店)에 앉아 있을 거다〉, 문학과지성사, 1998–

황지우 시인을 처음 만난 건 1990년대 초였다. 당시 필자는 광주(光州) 모 일간지 노조위원장이었고, 황 시인은 광주대 문예창작학과 교수였다. 매개는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론노련. 전국언론노동조합 전신) 호남대회였다. 언론노련 초대 위원장이 서울신문 파리특파원을 마치고 돌아온 권영길 기자였는데, 평소 권 위원장과 친분이 두터웠던 황 시인이 뒤풀이 장소에 불쑥 나타난 것이다.

식당 문을 드르륵 열어젖히고 들어서는 황 시인의 모습은 필자에게 꽤 충격적이었다. 우선 차림새부터 그랬다. 어깨까지 내려온 장발에 턱수염에 우람한 체격에 헐렁하고 칙칙한 옷을 입은 황 시인의 모습은 영락없는 보헤미안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소주와 막걸리가 몇 순배 돌아가고 언론민주와 연맹 이야기로 장내가 한창 익어가던 중, 기습처럼 느닷없이 우렁찬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젓가락을 두들기며 황 시인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가창력도 보통이 아니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황 시인의 노래가 필자에겐 애절양[哀絶陽. 다산 정약용이 지은 한시(漢詩)로 조선 후기 백성들이 과도한 군정으로 인한 고통을 못 견뎌 음경(성기)을 자른 것을 보고 슬퍼하며 지은 시]처럼 들렸다. 애절한 노래 가락 때문만은 아니었다. 황 시인의 형형한 눈빛에서 필자는 자유와 민주와 해방에의 갈구와 결기를 느꼈던 것이다.(황 시인은 군사독재정권에 항거하다 옥살이까지 했다.) 그런데 이 시를 읽다 그때 그 기억을 사뭇 떠올린 것이다. "성기를 자른 어느 젊은 스님에 대해 정각은 얘기하기 시작한다."라는 구절은 승속을 떠나 구도와 자유를 찾아 온몸을 투신하는 애절의 모습 그대로였던 것이다. 사설이 길어졌다.

진광불휘(眞光不輝). 한마디로 참된 빛은 반짝이지 않는다. 이 시가 그렇다. 아니 황지우 시인의 모든 시는 진광불휘(眞光不輝)다. 속안(俗眼)으로는 절대로 (부처님의) 광명을 볼 수 없음을 황 시인은 시에서 매번 보여주고 있다. 황 시인의 삶은 수행과 밥벌이가 불이(不二)이기 때문이다. 그 진광불휘의 맛을 좀 더 보자.

"여름 동안 창가 자미(紫薇)꽃이 붉게 코팅한 통유리;/ 잘못 들어온 말벌 한 마리가/ 유리 스크린을 요란하게 맴돈다/ 환영에 철(鐵)날개를 때리며// 어? 여기가 바깥인데 왜 안 나가지냐?// 무명진역무무명진(無明盡亦無無明盡)// 바깥을 보는 것까지는 할 수가 있지, 허나, 바깥으로 한번 나가보시지// 아아, 울고 싶어라; 투명한 것 가지고는 안 돼// 그해 겨울, 그 통유리창에 눈보라 몰려올 때/ 나, 깨당 벗고 달려나가/ 흰 벌떼 속에 사라지고 싶었다" -황지우의 '유혹' 전문

한 편 더. "해 속의 검은 장수하늘소여/ 눈먼 것은 성스러운 병이다// 활어관 밑바닥에 엎드려 있는 넙치,/ 짐자전거 지나가는 바깥을 본다, 보일까// 어찌하겠는가, 깨달았을 때는/ 모든 것이 이미 늦었을 때/ 알지만 나갈 수 없는, 무궁(無窮)의 바깥;/ 저무는 하루, 문 안에서 검은 소가 운다" -황지우의 '바깥에 대한 반가사유' 전문

둘 다 같은 시집에 실린 시다. 황지우 시인은 이미 부처의 눈을 가졌다. 진광불휘의 눈을 가졌다. 황지우 시인에겐 모두가 안이고 모두가 바깥이다. 참, 황 시인의 맏형은 승려다. 내력인가 보다.

〈불교문학연구소장〉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바쁜 일상, 속도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삶의 연속이다. 그러다보니 자신이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종속적인 삶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 뿐이다.

어떻게, 무엇에 의지해야 하나?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소원성취기도, 장기요양

한반도 시작, 땅 끝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수행도량 견성원 010-8208-7836

사주명리 / 점술 개인지도 · 애동제자 환영

비바미 신발은
우리 몸과 자연의 합일을 추구합니다

승복과 어울리는 색상과 디자인입니다.

신으면 자연과 지구를 발로, 온 몸으로 느낍니다.
발볼이 넓어 발가락과 발바닥의 기능을 살립니다.
걸으면서 명상하기 적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 판매 : vivame.co.kr ◈ 전화 : 02-922-6000

